

어려울 것이다. 성경이 예언한 그대로이다. 온 땅은 흑암으로 덮이고(사62:2), 사람들은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했다(딤후3). 기후 변화로 인해 지구는 불타고 있고, 사람들은 점점 타락하고 약해지고 있다. 우리가 사는 현장, 교회, 후대를 살리는 답이 없으면 결국 그 고통은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졌다. 왜 그랬어야만 했을까? 오고가는 모든 세대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다. 하나님은 다가올 문제와 고통만 알려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답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을 사용했지만 특별히 이사야를 통해 결론적인 답을 주셨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한다.

1. 하나님의 답이 무엇인가?

1) 본문 6절에 내가 너를 보존하고 남길 것이라고 했다. 이것이 렘넌트의 언약이다.

① 이사야 전체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답이다(사6:13, 10:20-21, 28:5).

이사야는 고통이 빨리 끝나기를 위하여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더 황폐해지고 더 무너질 것이라고 했다. 그것이 인간의 욕망에서 시작된 것이고, 첫 인생 아담이 실패하면서 온 땅에 깔린 어둠의 역사이다.

②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하고 남겨놓은 사람들, 그들이 렘넌트이다.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 하나님이 그들을 높힐 것이라고 했다. 하나님이 그들의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5절)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 손바닥에 새겼다고 했다. 그들의 성벽(인생 전체, 망대)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했다(16절)

2) 이 렘넌트들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 끝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것이 렘넌트 시대이다.

① 아무리 어둠이 온 땅을 덮어도 빛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 자신이 빛으로 오실 것이라고 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사60:1, 요1:1-5). 어둠이 이 빛이신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두려울 것이 없다.

② 이제 그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를 빛이라고 했고(마5:14), 빛의 자녀라고 했다(엡5:8)

하나님은 그 빛으로 나를 살리고, 내 가정 가문 교회를 살리고, 237 모든 족속으로 보내시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 끝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한 것이다.

이 빛을 모으고, 선포하고, 전달하는 시스템이 망대이고, 거기에 쓰임받는 자들이 파수꾼이다.

왜 우리가 렘넌트 시대를 여는 준비를 해야 하고, 여기에 헌신을 해야 하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결론이고, 우리가 누릴 모든 응답과 축복의 결론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아니면 우리도 다 세상에 포로로 살아야 한다.

렘넌트들이 일어날 때 그들은 빨리 걷고, 우리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떠나갈 것이라고 했다(17절). 그 렘넌트들은 모든 민족들을 향해 깃발을 들 것이라고 했다. 하나님이 그런 렘넌트들을 모으겠다는 것이다(21-22절)

2. 그렇다면 이 렘넌트들과 그들을 위해 1세대가 할 일은 무엇인가(올해 26차 세계 렘넌트 대회 메시지)

1)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잡으라. 렘넌트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잡으라는 것이다.

① 하나님은 렘넌트에게 흑암을 이길 권세를 주셨다. 제자들에게 강조한 것이 이것이다(눅10:19, 막16:17)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빛이요, 빛이 자녀요, 이 빛을 온 세상에 선포할 자라고 한 것이다(벧전2:9) 언약을 정확히 붙잡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분명하게 붙잡았다는 것이다.

② 이 속에서 나오는 렘넌트들이 미래이다. 언약이 분명하면 미래가 분명해진다.

세상과 그 속의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받을 응답이 따로 있다(사43:18-19)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작은 자라도 우리를 통해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했다(사60:20-22)

③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미션도 나오는 것이다. 그것이 파수꾼의 미션이다.

나를 살리는 파수꾼의 기도이다(사62:6-7). 내 가정과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파수꾼이다(사62:8). 만민을 위해 대로를 준비하고 깃발을 드는 기도이다(사62:10). 여기서 237 살리는 망대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2) 영적 씨앗의 길을 가라.

렘넌트는 어떤 환경 현실에서도 지금 누릴 축복이 있다. 모든 것을 감사로 바꾸고 영적 씨앗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시23편의 다윗의 고백)

① 지금 내 현장에서 영적 씨앗이 되라.

요셉은 노예로 있던 자리에서, 감옥에서, 왕궁에서도 똑같았다(With, Immanuel, Oneness의 축복을 누렸다)

② 심부름하면서 영적 씨앗이 되라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양을 치면서 거기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렸다(시78:70-72).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가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역사를 체험했다. 그때 이미 영적 씨앗이었다(삼상17:36)

③ 지금 하는 나의 일과 학업에서 씨앗의 도전을 하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 아무리 작은 것도 작은 것이 아니다. 어려운 일도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해, 그 능력을 누리면서 하면 결국 왕 앞에, 세상 앞에 서게 된다.

3) 흔들리고 무너질 수 없는 절대 망대(시스템)을 세우라

① 매일 24로 다섯가지 하나님의 약속된 능력을 누리라(정시기도, 예배기도, 무시기도, 호흡기도)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능력(하나님의 다스림), 3시대 살릴 수 있는 능력(시대 흐름을 넘어서는 것), 공중권세를 회복하는 능력(영적 승리),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오력이다(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② 이때 다섯가지 축복을 체험하고 누리게 된다(CVDIP의 망대)

정확하게 성취될 말씀을 주신다(언약의 망대). 모든 환경과 재앙의 현실에서 25의 비전이 보인다(비전의 망대). 영원을 바라보면서 누리는 꿈이 생긴다(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재창조의 그림이 그려진다(이미지). 우리의 하는 일이 보좌의 작품이 된다(특히 빛의 경제 회복)

③ 이 망대(시스템)으로 세가지 돌을 회복해야 한다(237 다민족 시스템, 렘넌트 시스템, 치유 시스템)

별써부터 우리 교회에 이 시스템을 준비하게 하셨다. 이 시스템을 더 강화시키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결론-우리는 이 시대 렘넌트의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다(롬11:5). 남은 자의 길을 가는 것이다, 모든 것을 초월할 힘을 키우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것이다. 사단은 공중 권세를 움직이며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지만 우리는 승리자의 길을 가는 것이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지금 영적 씨앗으로 도전하고,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를 세우기를 축복한다.